

## 2024년 9월중 가계대출 동향(잠정)

- '24.9월중 소금융권 가계대출은 +5.2조원 증가하여  
전월(+9.7조원) 대비 상승폭 둔화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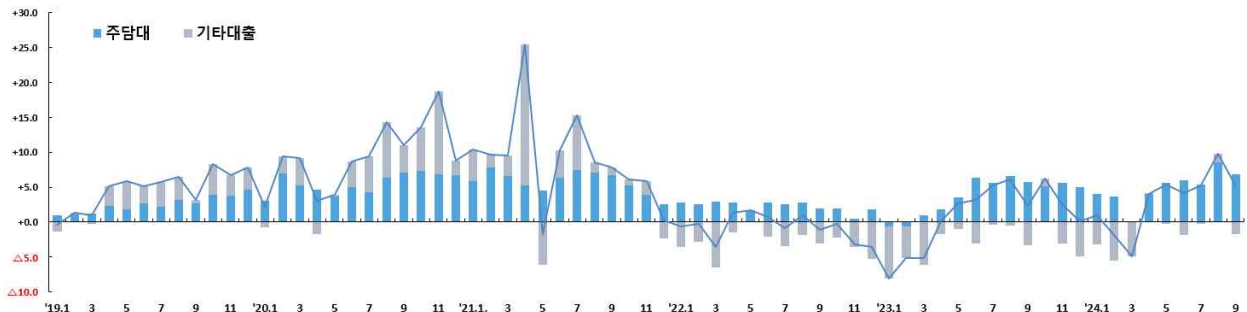
\* 증감액(조원) : ('24.4월)+4.1 (5월)+5.3 (6월)+4.2 (7월)+5.2 (8월)+9.7 (9월<sup>P</sup>)+5.2

- 향후 금리·부동산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,  
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 가계부채를 총력관리 -

'24.9월중 소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+5.2조원 증가하여 전월(+9.7조원)  
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.

소금융권 주담대·기타대출 증감액 추이

(단위 : 조원)



주택담보대출은 +6.9조원 증가하여 전월(+8.5조원) 대비 증가폭이 축소  
되었으며, 은행권 주담대의 증가폭도 전월 대비 축소(+8.2조원 → +6.2조원)되었다.

기타대출은 은행권(+1.1조원→△0.5조원)과 제2금융권(+0.1조원→△1.2조원)  
모두 감소하였다.

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

(단위 : 조원)	'24.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 <sup>P</sup>
주담대	+0.02	+4.1	+5.6	+6.0	+5.4	+8.5	+6.9
기타대출	△5.0	+0.01	△0.2	△1.8	△0.2	+1.2	△1.7
합계	△4.9	+4.1	+5.3	+4.2	+5.2	+9.7	+5.2

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.

'24.9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+5.7조원 증가하여, 전월(+9.2조원)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. 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(9.1일)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은행권이 자율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축소(+8.2조원→+6.2조원)된 점 등에 기인한다.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감소 전환(+1.1조원→△0.5조원)하였다.

※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세부 현황(조원) :

(8월) 주담대(+8.2조) = 은행자체(+6.4조) + 디딤돌버팀목(+3.9조) + 보금자리론 등(△2.1조)  
↳ 일반(+7.6조) + 집단(△0.5조) + 전세(△0.8조)

(9월<sup>p</sup>) 주담대(+6.2조) = 은행자체(+4.0조) + 디딤돌버팀목(+3.8조) + 보금자리론 등(△1.6조)  
↳ 일반(+4.4조) + 집단(+0.3조) + 전세(△0.7조)

\* 디딤돌·버팀목 기금 자원 증가액(조원) : ('24.6월) △0.6 (7월) △0.6 (8월) △0.5 (9월<sup>p</sup>) △0.5

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경우, 주담대는 전월 대비 증가(+0.3조원→+0.7조원) 하였으나, 기타대출이 분기말 부실채권 상각 영향으로 감소(+0.1조원→△1.2조원) 하였다.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(△0.4조원), 여전사(△0.4조원), 저축은행(△0.2조원)은 감소하고, 보험(+0.4조원)은 증가하였다.

####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

(단위 : 조원)	'22년중 (1~12월)	'23년중 (1~12월)	'24년중 <sup>p</sup> (1~9월)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 <sup>p</sup>
은행	△2.8	+37.1	+40.9	△1.7	+5.1	+6.0	+5.9	+5.4	+9.2	+5.7
제2금융권	△6.0	△27.0	△13.1	△3.3	△1.0	△0.7	△1.7	△0.2	+0.5	△0.5
상호금융	△10.6	△27.6	△14.7	△2.3	△2.1	△1.5	△1.0	△1.2	△0.9	△0.4
신협	+0.1	△4.4	△3.4	△0.5	△0.4	△0.3	△0.3	△0.4	△0.2	△0.4
농협	△11.1	△15.7	△7.7	△1.1	△1.0	△0.9	△0.4	△0.5	△0.7	△0.3
수협	△0.5	△0.8	+0.0	△0.02	△0.05	△0.03	+0.02	+0.02	+0.03	+0.1
산림	△0.1	△0.4	△0.2	△0.03	△0.02	△0.02	△0.01	△0.03	△0.02	△0.00
새마을금고	+1.2	△6.3	△3.4	△0.7	△0.6	△0.3	△0.3	△0.3	△0.02	+0.2
보험	+3.6	+2.8	△0.9	△0.2	△0.02	+0.1	△0.2	△0.1	+0.3	+0.4
저축은행	+2.3	△1.3	+0.5	△0.3	+0.5	+0.1	△0.3	+0.2	+0.4	△0.2
여전사	△1.3	△0.9	+2.0	△0.4	+0.6	+0.7	△0.3	+0.8	+0.7	△0.4
금융권합계	△8.8	+10.1	+27.8	△4.9	+4.1	+5.3	+4.2	+5.2	+9.7	+5.2

금융당국은 “9월 1일부터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 DSR의 효과가 시장에 일부 반영되고, 은행권에서도 가계부채 관리노력을 강화하면서 8월 보다는 가계부채 상승폭이 둔화되었다”고 평가하면서도 “가계대출 증가폭이 여전히 높고, 추석 연휴 등 계절적 요인도 작용한 점을 고려할 때,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”고 밝혔다.

또한 “美 연준 기준금리 빅컷(Big-cut) 단행(9.19일) 등 금리·부동산 상황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가계부채 관리수단을 검토하고 있다”고 하면서 “금융권도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”고 당부하였다.

<총괄>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	강영수 (02-2100-2830)
	금융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임형준 (02-2100-1690)
			사무관	이은진 (02-2100-1692)
			사무관	남진호 (02-2100-1696)
<공동>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	이진수 (02-2100-2950)
	은행과	담당자	사무관	김경호 (02-2100-2953)
<공동>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	고영호 (02-2100-2960)
	보험과	담당자	사무관	박성진 (02-2100-2967)
<공동>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	신장수 (02-2100-2990)
	중소금융과	담당자	사무관	허 성 (02-2100-2862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정우현 (02-3145-8020)
	은행감독국	담당자	팀 장	안신원 (02-3145-8040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서영일 (02-3145-7460)
	보험감독국	담당자	팀 장	곽정민 (02-3145-7455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이종오 (02-3145-6770)
	중소금융감독국	담당자	팀 장	이희성 (02-3145-6773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김은순 (02-3145-7550)
	여신금융감독국	담당자	팀 장	최영주 (02-3145-7552)